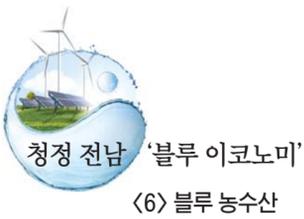


# 기후변화 따른 농업환경 선제 대응 미래 먹거리 육성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전남도는 더 나아가 벼 위주의 인증에서 탈피, 과수·채소 등 인증 품목을 다양화하는 한편,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스타기업을 키워 부가가치를 높이고 남도장터 등과 연계, 친환경 농산물 전문 코너를 설치해 판매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먹거리·볼거리·즐거거리 등을 연계한 융·복합 농원을 조성, 새로운 소득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친환경 농업(1차산업)을 활용해 제조·가공(2차산업) 산업을 활성화하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3차산업)를 연계, 6차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구례군 용방면 일대 7만9039㎡ 부지에 180억원을 들여 유기농 체험·가공센터, 마케팅 센터, 자연순환 생태체험장 등을 갖춘 유기농업 복합타운을 조성,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중이다.

여기에 시급하게 다가온 기후 변화로 인한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국립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를 조성해 신소득 유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등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데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전남은 한반도 아열대화의 시작점이자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 특성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한반도 미래 기후의 축소판이다. 또 전국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314.3ha)의 26%(82.5ha)를 차지해 아열대 작물 연구와 재배기술 확산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아열대작물 실증센터를 통해 수입되는 아열대 과일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농가들의 신규 소득작물을 육성하는데 활용한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전남도는 아열대작물 실증센터가 다양한 소득 유망작물에 대한 체계적 육성·보급으로 아열대 과일시장을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정 해역, 지속가능한 블루 수산업의 핵심=해양 쓰레기는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다.

전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



## 미래를 꿈꾸는 농업, 여성이 바꾸는 세상 2019 국제농업박람회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리고 있는 '2019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다. 사진은 국제농업박람회 개막식. <전남도 제공>

친환경 인증 면적 전국 55.6%

먹거리·볼거리·즐거거리 연계

융·복합 농원 조성 새 소득원으로

어장 황폐화·수산물 불신 원인

스티로폼 등 해양쓰레기 제로화 나서

해역 재생사업·어장환경기반 마련

달성에 나선 것도 해양 생태계 위협에 대응하는 것 뿐 아니라 전국 최대 양식어장(18만6000ha)을 갖고 있는 전남 양식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내 해양쓰레기 연간 발생량만 8만4000 t에 이르며 해양환경 주요 오염원으로 꼽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경우 6만7000 t에 달한다.

해양쓰레기는 염분, 뱀 등 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육상쓰레기에 비해 처리비용이 2~3배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세척·절단·선별시설을 갖춘 해양쓰레기 전(前) 처리시설을 권역별로 구축, 재활용 확대 및 에너지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해 스티로폼 부표를 처리하는 페스티로폼 감용기를 매년 2기 이상 확대 보급하고 폐각 산업자원화 방안도 마련중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전남에서 발생한 골 폐각 3만7000 t 중 2만1000 t이 미처리된 상태다.

매년 연안에 방치되어 있는 폐각 처리 방안으로 산업시설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탄산칼슘을 98% 이상 함유하고 있는 폐각을 제철소 고로에 사용되는 소석회 대용으로 공급할 경우 연간 최대 9만 t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입장이다.

또 득량만(315.7km<sup>2</sup>)·기막만(154.2km<sup>2</sup>)·완도 도암만(338.5km<sup>2</sup>)·함평만(140.7km<sup>2</sup>) 등 환경보전해역 4개소와 여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285.5km<sup>2</sup>) 등 5개 해역을 대상으로 환경관리해역 재생사업도 추진, 지속가능한 어장환경기반 조성 및 해양생태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득량만 환경보전해역의 경우 키조개, 피조개, 꼬막, 새꼬막 등 패류의 수산지로서 높은 가치가 있으나 꼬막생산량이 감소(2010년 8898 t→2017년 5155 t)하고 있어 해양생태계 개선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재생사업을 발의 방침이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자동화·지능화한 스마트양식장과 대량 생산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연관 산업이 모여 있는 대규모 단지다.

전남도는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일대 부지(8만 8976㎡)에 국비와 지방비 등 400억원을 들여 스마트양식 시범양식장과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청정 바다 생태계 조성을 통한 블루 수산업을 추진중인 전남도는 해양 쓰레기 제로화에 공을 쏟고 있다. 화태도에서 해양 쓰레기 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 제공>

### “농·어업 생산물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전남도의 블루 농·수산 분야와 관련, 지역민들이 농·어업 생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구조, 가치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최상덕 전남대 해양기술학부 교수(서한국미해 바다포럼 상임대표)는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 대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브랜드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생산량 대비 수익은 타 지역에 비해 뒤진다”고 지적했다.

양식산업의 경우도 비슷해 제조·가공 산업 활성화 뿐 아니라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운다는 점에서 해양 쓰레기 대책도 적극 추진해 지역 청정 수산물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경환 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도 농·어민들이 공을 들인 만큼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전남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남지역 친환경 농업의 경우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5%가 넘을 정도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농민들이 공을 들인 만큼 시장에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판로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소비자들에게 전남지역 친환경 농산물의 우수성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대로 인식시

키고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얘기가. 농산물 생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제조·가공을 활성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데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작목을 심는 게 농가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파악,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업을 빼고 전남지역을 이야기 할 수 없는 만큼 전남도가 블루 이코노미의 6대 프로젝트에 블루 농·수산 분야를 포함한 점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만족 최우수기업상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엑스퍼트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